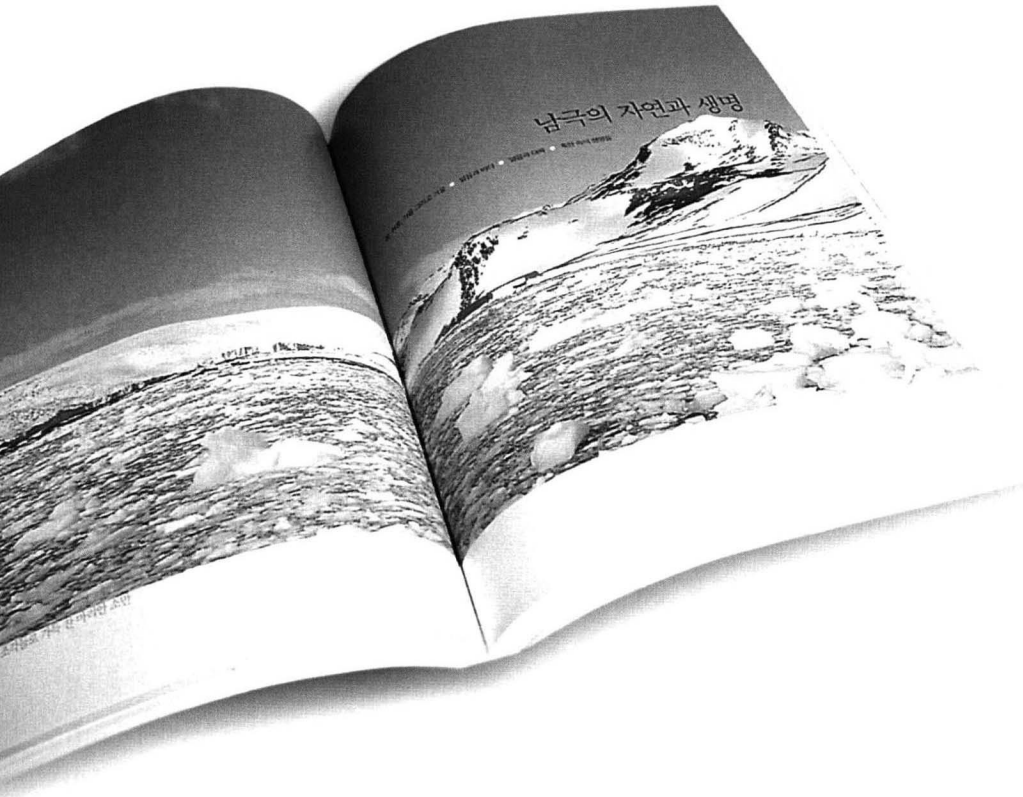


'잘 잘 잘' 얼음 부딪치는 소리, 몸과 마음으로 느낀 남극의 기록

《남극 탐험의 꿈》 깊이 읽기



김용서 |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즘은 세계가 좁아져서 지구 구석구석 가기 힘든 곳이 별로 없지만, 남극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가혹한 환경 때문에 아직도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남극은 여전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개척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사이언스 북스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남극을 다룬 《장순근 박사가 쓴 남극 탐험의 역사와 세종기지 이야기, 남극 탐험의 꿈》(이하 《남극 탐험의 꿈》)이 발간되어, 최근 남극 세종기지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연구원들의 사고로 인하여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남극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었다.

《남극 탐험의 꿈》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장 '남극을 향한 열정'은 우리나라의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사우스셰틀랜드 군도의 킹조지 섬에 대한 지리이야기로 시작된다. 사우

스셰틀랜드 군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끝과 남극반도 사이에 길게 늘어선 작은 섬들이며, 남극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은 사우스셰틀랜드 군도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크다. 이 장에서는 사우스셰틀랜드 군도의 발견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물개와 고래를 잡기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러시아, 폴란드, 브라질, 우루과이, 중국, 체코 등 각국이 앞다투어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역사를 알 수 있다.

둘째 장 '남극 탐험의 꿈, 세종기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남극 진출 역사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남극에서 크릴 시험조업을 하면서 남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두 팀으로 구성된 '한국 남극관측 탐험대'가 조직되어, 한 팀은 남

극 최고봉을 등정하고, 다른 한 팀은 킹조지 섬을 탐험하였다. 당시 킹조지 섬에는 외국의 기지가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남극기지를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였다. 이듬해인 1986년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에 가입하였고, 1987년에 세종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해 2월 17일 기지의 완공을 보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남극에 한국 사람이 상주하는 기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의해 본격적인 남극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약 1만7,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남극 킹조지 섬의 산봉우리에 세종봉이란 우리 이름이 붙여지고, 세종기지의 연구동과 숙소동 사이로 난 길에 세종로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장을 읽으면 세종기지는 단순히 과학적인 연구만을 위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 끝에는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 니알슨에 문을 연 우리나라의 북극 다산기지를 소개하고 있어 독자들은 남극에서 북극까지 그야말로 극에서 극으로 여행할 수 있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장 '남극의 자연과 생명'은 문명세계와는 동떨어진 세종기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얼음이 가득한 이곳에 사는 펭귄이나 해표 등 신기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남극의 가혹한 환경은 아니다. 세종기지에서 관측된 가장 낮은 온도는 1994년 7월 14일에 기록된 영하 25.6도였고, 가장 높은 온도는 1999년 1월 11일 기록된 영상 12.0도였다. 9월이 되어 남극에 봄이 찾아오면 킹조지 섬의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눈이 녹고 선대식물이 자라 세종기지 주변은 백색 일변도에서 녹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쯤이면 남방 코끼리물범(코끼리해표)이나 웨델해물범(웨들해

표)들이 모여들어 번식을 시작한다. 추운 겨울을 피해 갔던 펭귄들도 돌아와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한다. 한겨울 동안 눈과 얼음에 묻혀 지내던 세종기지의 봄은 이렇듯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잔치를 연다.

넷째 장 '세종기지의 추억'은 저자가 남극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얻은 갖가지 경험담을 담고 있다. 이 책 가운데 독자들이 가장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얼룩무늬물범(표범해표)의 사진을 찍던 일, 계잡이물범(크랩어터해표)의 고기로 끓인 탕을 맛본 일, 과도로 하얗게 덮인 바다에서 널뛰듯 튀어 오르는 고무보트를 몰고 가던 일, 세종기지의 하수관이 막혀 일어난 해프닝, 문명과는 차단되었던 세종기지에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바뀐 생활상,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남극기지와 관광선의 검열과정, 세종기지에서 피어난 달개비 꽃을 실수로 끊어버리고 죄책감을 느낀 일, 극지우편봉투 수집, 동지를 축하하는 잔치, 세종기지를 찾은 방문객, 침몰한 아르헨티나 선박의 구조 작전, 남극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남극에서 오래 생활한 저자는 이 책의 마무리를 '못다 한 이야기'로 끝내면서, 300쪽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이 책의 지면 제약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만큼 남극에 대해 풀어놓을 이야기보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리라. '화장실에서 금니가 빠져 변기를 뒤져 며칠 만에 다시 찾아 원래 자리에 끼운 이야기' 등 이곳에 제목으로만 적어놓은 일화들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일화들보다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다음에 나올 책이 기다려진다.

'남극 탐험의 꿈'을 읽으면 사람이 그리운 남극에서는 얼굴 모습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더라도, 또 종교와 이념이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이 그리워 별일 없어도 이웃에 있는 기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문객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환대한다. 생명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달개비 꽃을 실수로 꺾고는 죄책감을 느끼고, 물에 담가두었던 달개비 줄기에서 하얀 뿌리들이 돌아오자 강한 생명력에 위경심을 가지게도 된다. 하얀 설원만큼이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남극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작년 12월 6일 칠레기지에서 돌아오다 연락이 끊긴 동료들을 찾으러 나섰다. 약천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전재규 대원도 바로 남극의 설원 같은 하얀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책을 읽을 때 짜증이 나는 두 가지 부류의 책이 있다. 비전문가가 써서 내용에 오류가 많은 책,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지 않은 저자가 써서 혼이 담기지 않은 책이 그것이다.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은 마치 복사한 명화를 보듯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책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극 탐험의 꿈》은 남극에서 수 차례 월동대장을 지내 누구보다도 남극에 대한 직접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몸과 마음으로 느낀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장을 넘길 때마다 눈에 다가오는 남극사진들은 독자들이 마치 남극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 속으로 밀어 넣는다. 저자의 오랜 남극생활 이력은 책을 읽다보면 군데군데에서 느낄 수 있다.

남극을 잠깐 방문한 사람들은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깎여 신기한 모양을 한 빙산에 눈길을 빼앗기고, 탄성을 지르는 것으로 남극의 비경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얼음을 바라보며 남극생활을 한 저자는 얼음들이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었다. 바람과 파도가 없는 조용한 날에는 작은 얼음조각들이 부딪쳐 나는 '잘 잘 잘' 하는 소리에서 남극의 정취를 더 한층 느끼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킷속말을 하는 것 같은 큰 얼음덩어리

들이 내는 소리까지도 듣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에서 녹아나온 글을 수록하고 있어 남다르다. 굳이 옥의 티를 찾아내라면, 촉박한 일정 때문인지 몇 군데 문장은 오류를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친 곳이 눈에 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사이언스북스에서 발간하는 '자연과 인간' 시리즈가, 번역서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자연과학 분야 출판시장에서 국내 저자들이 지식의 탐을 쌓아가는 좋은 기획이 되도록 기대해본다. **★**

이 글을 쓴 김웅서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SUNY at Stony Brook에서 해양생태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 《해양생물》이 있고, 역서로 《아름다운 바다》 《바다는 희망이다》 등이 있다.



17,240km -25.6° 40m 12.0° 66.5° 4,000m 1,700m 6,300m 70°C 1%